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시험지 로 알아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

## 수능/모의고사 영어의 특징

수능 영어는 어떤 시험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고 어떤 언어를 누군가가 잘 구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시험이 만들어지고 응시되곤 합니다.

수능 영어는 대한민국의 시험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합니다. 수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응시하곤 합니다. 영어 시험이기에 영어 능력을 측정하지만,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수능 영어만의 특징이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혹은 시험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갖추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같은 영어 실력으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아내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영어는 70분 동안 45문항을 해결합니다. 주로 언어 시험에서 언어를 네 가지 영역으로 쪼개어 평가하곤 하는데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와 같은 구분을 따르곤 합니다. 수능 영어는 듣기 17문항과 읽기 28문항으로 구성됩니다. 70분 중 초반 약 25분 동안은 듣기 음성 파일을 듣고 주어진 질문에 알맞은 답변을 고르시면 됩니다. 5개의 선택지 중 1개를 고르는 식으로 출제됩니다.

듣기 17문항에 대한 방송이 종료된 후엔 남은 약 45분 동안 읽기 문항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각 문항의 번호에 특정 유형이 대응되어 출제되곤 하는데 실제 시험지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읽기 28문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곤 합니다.

비킬러 1: 25, 26, 27, 28, 29

비킬러 2: 18, 19, 20, 22, 23, 24, 41, 42, 43, 44, 45

킬러: 21, 30~40

듣기 문항을 해결하는 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는 듣기 문항을 해결하고 다음 문항의 음성이 흘러나오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읽기 문항을 풀기도 합니다. 저는 비킬러 1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주로 먼저 해결하는 편입니다. 이후 5문항을 모두 해결하고 음성 파일의 시간이 남은 때에는 비킬러 2에 해당하는 문항도 살펴보는 편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 분류에 따를 때 비킬러 1, 2에 속하는 문항들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문항들입니다. 실제 통계를 확인해볼 때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문항들입니다. 사람마다 시험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쉬운 문항들부터 다루는 편입니다. 특히 영어 시험은 우리의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바탕으로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씩 뇌를 영어에 익숙하게 만드는 시간이 전체적인 시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능 영어 외에도 우리가 중고등학생, 대학생으로서 접할 수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언어 시험이 존재합니다. 학습하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된 다양한 시험을 살펴보는 것이 학습 계획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래의 시험들을 영어 학습에 활용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사관학교 1차 시험 영어
- 경찰대 1차 시험 영어
- 토익 (TOEI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 토플 (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수험생 분들께서는 수능 영어를 공부하실 때 영어 실력 자체를 기르는 공부와 수능 영어라는 특정한 시험에서의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공부를 병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듣기 17문항은 음성 파일을 잘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하여 관련된 문항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연습 하실 때에는 학습 방법을 두 가지로 쪼개어 병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1) 듣기 대본과 문제를 나란히 펼쳐두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정답의 근거가 되는지 확인
- 2) 음성 파일을 틀어두고 듣기 대본을 보며 어떤 단어, 표현, 문장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어떠한 느낌으로 들리는지 확인

#1

음성 파일이 흘러나오기 전 5개 선지를 모두 훑어보고 듣기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는 것도 좋고 음성 파일을 다 듣고 나서 '이런 느낌이 정답이 되겠다' 싶은 것을 선지 중 찾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로 선지를 먼저 살펴본 후 음성 파일을 듣는 방식을 따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Volunteers to help with the charity soccer match next month와 a great opportunity to get involved in helping children이 근거가 되어 '자선 축구 경기 자원봉사자 모집을 안내하려고'가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Shouldn't interrupt someone과 Still, that's not polite와 you shouldn't cut them off와 letting others finish what they're saying이 근거가 되어 '상대방이 말할 때는 말을 끊지 말아야 한다.'가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Good night's sleep is important와 wearing an eye mask와 an eye mask가 근거가 되어 '수면 안대를 착용하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가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Next to the box가 근거가 되어 on the box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The tennis competition schedule과 print와 I'll do it tonight이 근거가 되어 '대회 일정 인쇄하기'가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개당 \$30인 photo tumbler을 take two of them 하고 개당 \$5 하는 Christmas key chains를 take four 하는데 10% off the total cost 라고 하니  $(2 \times 30 + 5 \times 4) \times 0.9 = 72$  따라서 \$7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유형의 경우 숫자 관련 이야기, 가격 변동 (물품 구매 가능 여부, 할인 여부 등) 관련 이야기가 들릴 때 시험지에 작게 메모해두었다가 간단한 사칙 연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의 경우 종종 사칙연산이 과하게 복잡하게 주어지거나 구매할까 말까 하는 고민이 과하게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평가원 기출 문항에 근거하여 학습을 이어나가는 것이 수능 대비에 도움이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7

Visit the police station이 근거가 됩니다.

#8

The Shiny Moments, 25 people, \$30 each, starts at 3 p.m.이 근거가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이 네 가지처럼 정답 도출에 확실히 도움이 될 정보들만 잡아내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성 파일 들으시다가 '이건 선지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겠는데?' 싶은 정보가 있다면 메모해두었다가 선지 판단에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문항,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9

North가 근거가 됩니다.

#10 주로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가는 식으로 출제가 되곤 합니다. Not spend more than \$50으로 E model이 배제되고 30kg가 not be any good하다는 점에서 A model이 배제되며 blue와 different한 것을 선호하는 점에서 C model이 배제되고 metal이 아닌 the other를 선호하는 점에서 D model이 배제되어 정답은 B model이 됩니다.

#11 ~ #15 비슷한 방식으로 [2024학년도 수능 영어 듣기 대본 (책참)] 파일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 ~ #17 수능 영어 듣기 문항 중 유일하게 두 문항이 하나의 음성 파일에 엮인 경우입니다. 처음 들을 때 #17에 초점을 두며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가시다가 다 들으신 후 '대충 이러한 이야기 같은데?' 싶은 선택지를 #16에서 골라주시면 높은 확률로 점수를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8, #19

마찬가지로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근거가 되어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의 기본은 질문이 무엇이고 주어진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디까지가 정확한 것이고 어디부터가 정확하지 않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로 이에 대해 깊은 고민을 이어가다보면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어도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가끔은 느낌대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논리적이어야 하거나 모든 것이 깔끔한 계산으로 정리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

수능 영어는 주로 학술적 글 (진지한 글) 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런 진지한 글은 같은 문단이라면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능 영어는 대부분의 읽기 문항이 한 문단짜리 지문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각 문항에 대해 **논리를 단순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지문 이해와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성 마이맥의 선티나 명인학원의 황승훈T의 경우 이러한 논리 단순화에 기반한 문제 풀이법을 학생들께 가르쳐주시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다만 어떻게 논리를 단순화해야할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순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공식적인 해설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종종 수능과 관련된 자료에 한 두 문항에 대한 언급이 녹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고민해보시며 나만의 선지 판별법, 정보 정리법을 확인해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Values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Changing values into behaviors는 반만 온 것이다. A visual representation이 중요하다.

선지 1번은 values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지 2, 3, 4번은 각각 지도자, 자발적 행동, 의사소통과 같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지 5번은 values를 거쳐 changing values into behaviors를 거쳐 a visual representation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선지 2번의 '명확한 가치관'과 선지 4번의 '핵심 가치 실현'은 모두 values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21

How you focus your attention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ttentional spotlight is widened 하면 turns down the stress level하고 into a broader perspective하고 the bigger picture하므로 having a larger view of an experience beyond its stressful aspects가 적절하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22

Being able to prioritize your responses가 중요하므로 선지 1번이 적절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논리만 단순화하는 것이지 현장에서 지문 1~2번씩은 읽으셔야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유롭게 글을 읽어낼 수 있는 실력은 평소에 많은 글을 읽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ebs 연계교재 (수능특강 영어,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수능완성 영어) 3권을 정답 표시해둔 채로 해설과 함께 1년 동안 반복해서 매일 30분 ~ 1시간씩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양의 텍스트를 읽어낸 것이 수능 영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을 쌓는 데에는 물론 대학에 와서 영어로 된 글들을 읽으며 학습을 이어갈 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3 market incentives에 관한 이야기인데 ecosystem services, economics benefits, economic benefits of ecosystem services, ecosystem services, non-market values가 같은 이야기이고 이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financial benefits, market values, timber, market benefits, cutting down the trees, extractive uses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수능 영어에 출제되는 지문들 중 큰 틀에서 같은 이야기라 볼 수 있는 두 이야기 A, B에 대하여 지문 전체를 A와 B의 대립으로 이해해보는 것이 지문 정보 파악은 물론 정답 도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셉티T의 ABPS 중 AB와 황승훈T의 A≠B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능 영어 문제 풀이 및 TOEFL 등 학술적 영어에 관한 공부를 할 때면 중

종 이러한 식의 사고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강제로 논리가 대립하는 구조?를 잡아주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24 overtourism이 things become more complex한다고 하니 overtourism이 not simply하다는 선지가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25 일본의 경우 해가 지날수록 수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26 earned his doctoral degree 한 후에 in 1939, and then he took a job at Bell Labs라고 합니다.

#27 Booking must be completed no later than 2 days before the day of the tour라고 하므로 당일 예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8 Video length cannot exceed three minutes라고 합니다.

#29 수능 영어 문법 문항은 45문항 중 한 문항인데 주로 몇 가지 주제 내에서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관계사입니다. 2번 선지인 which 뒤 문장에 부족한 문장 성분이 없으므로 which는 올 수 없습니다. 주로 출제되는 내용에 관해선 평가원 기출 분석을 조금 더 해본 후에 남겨두겠습니다. (물론 이미 시중에 좋은 학습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것 하나 골라 활용해보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30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느낀 문항 중 하나입니다. Bazaar economies에 관한 이야기인데 Bazaar economies가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necessity와 luxury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단순한 논리로 문항이 풀리곤 하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머리를 썼어야 했어서 놀랐습니다. Necessity는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므로 아무리 가격이 높아도 필요한 경우에는 사야 합니다. 그

런데 luxury는 꼭 필요하진 않으므로 싸면 살지 몰라도 비싸면 사지 않습니다. 따라서 they are not a necessity at the same level이라면 not to directly 높은 가격에 팔면 안됩니다. 따라서 low가 아닌 high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0번 유형의 경우 주로 흑백이 명확한 선지가 정답이 될 확률이 큼니다. 예를 들어 apple처럼 뭐 어찌라는 것인지 모르겠는 선지의 경우 오답일 확률이 크고 good & bad처럼 대립이 명확한 선지가 정답일 확률이 큼니다.

#31

How children learn to read에 관한 글입니다. Design features가 predominate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reading이 more complicated하다고 합니다. Printed text에 was focused 되었을 때보다. 이때 sketches or pictures는 adjunct였다고 합니다. Reading은 not simply word recognition이라고 하니 word recognition은 printed text와 with sketches or pictures as an adjunct와 비슷한 맥락일 것임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32

A musical score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Sound designers는 unique하지만 composers는 familiar하고 recognizable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recognizable context하고 familiarity allows하여 acceptable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aids in viewer access to the film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31번 지문에서 more complicated라는 맥락에 대비되는 맥락이 printed text와 word recognition이라고 생각한다면 32번 지문은 sound designers와 unique에 대비되는 맥락이 composers와 familiar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수능 영어에서는 때로 대비되는 맥락을 강제로 잡는 것이 현장에서의 지문 이해와 정답 도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무엇이든 그렇듯이 홀로 오래 고민해보고 많은 글을 읽어보며 일관된 방법론을 적용해보는 것이 적어도 수능 영어 문제 풀이에 있어 나름의 무엇인가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3

앞선 30번 지문과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문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볼 때 invariably와 isolated가 같은 맥락, 그리고 setting or context를 포함하여 cyan색으로 칠해져 있는 표현들이 반대되는 맥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문의 내용은 invariably, isolated입니다. 따라서 consistently, precision, definitively, unique로 나타난 네 개의 선지가 아닌 any number of them could be substituted for one another without loss가 적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지문이 까다롭다 느낀 이유는 선지 또한 추상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cyan색으로 표시한 네 개 선지의 표현 몇 가지 외엔 명쾌하게 오답이라 설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답 선지인 any number of them could be substituted for one another without loss 또한 왜 정답 선지인지 명쾌하게 설명하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setting or context, determinate, particular situations로 이어지는 흐름이 consistently, precision, definitively, unique로 이어진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5번 선지가 정답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34

비슷한 방식입니다. 같은 색은 같은 맥락을 의미합니다. 1, 2번 선지는 맥락과 무관하다 생각했고 3번 선지는 independently 때문에, 5번 선지는 how (her) city operates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봤습니다. 4번 선지는 how she gets around가 근거가 되며 3번 선지의 the streets she travels on과 맥락 상 같은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의 느낌 혹은 정답률로 볼 때 빈칸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특히 4번째 문항인 34번은 네 문항 중 가장 어려울 때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이거나 맥락을 잡기 쉽지 않은 지문들이 위치하곤 하기 때문에 저는 더욱 강제로 맥락을 잡아보려는 시도를 하곤 합니다. 만약 잡을 수 없겠거나 지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싶으면 넘겼다가 시험 끝나기 1분 전 즈음에 대충 가장 덜 나온 번호로 찍고 OMR 카드를 제출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지는 33번처럼 4개가 반대 맥락, 1개가 적절한 맥락으로 잡히면 좋지만 2개가 무관하고 2개가 반대 맥락이어서 1개가 정답이 되는 식의 구조를 자주 접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후에 평가원 기출 분석을 더 해본 후에 기회가 되면 남겨보겠습니다.

#35

Speaking fast에 관한 글입니다. 3번 선지는 making a good decision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다가 느낌이 이상한 선지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식일 수 있고 선지를 하나씩 정답이라 가정해본 후 모순을 보이는 귀류법 식의 풀이법도 좋은 방식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지선다 문항에서 선지를 판별해내고 정답 선지를 골라내는 당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6

주어진 문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각 문단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본 후 가장 자연스러운 순서대로 문단을 배치하면 됩니다. 혹은 특정 표현을 단서로 인식하고 다음에 이어져야 할 내용을 짐작한 후 가장 가까운 문단을 고르는 식도 좋습니다.

주어진 문장은 negotiation이 an acceptable outcome에 도달하기 위해 conflicting positions를 explore하거나 reconcile 하려는 시도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B 혹은 C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에 B부터 살펴봅시다. These and sometimes other forms of negotiation이라는데 these가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이 주어진 문장에 딱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C로 넘어갑시다. The nature of the outcome의 the outcome이 주어진 문장의 an acceptable outcome으로부터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C는 negotiation이 두 주체의 공통된 관심과 갈등의 동일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주체의 의도에 따라 공통 관심 범위가 분명해지고 정제되어 negotiation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 A가 배치되면 자연스러울지 살펴보니 차이의 부분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는 아까 살펴봤듯 these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을 C 뒷부분에서도 찾기 힘들다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A를 조금 더 읽어보면 주체들이 상당히 적대적이거나 양극화된 상황에서는 갈등의 영역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흐름 상 주어진 문장에서 negotiation을 정의하고 C에서 areas of common interest 이야기하다가 A에서 areas of difference 이야기 하고 이제 areas of conflict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B를 확인해보니 이제 these가 areas of conflict와 관련된 negotiation을 말하는 것 같다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Areas of common interest, difference, conflict로 이어진 맥락을 살펴볼 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충돌이 지속되는 주체 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니 negotiation이 reconciling conflicting interests 외에 delay, publicity, diverting attention or seeking intelligence about the other party and its negotiating position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맥락이 자연스럽다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라면 현장에서 위와 같은 사고 과정 혹은 약간의 생략, 변주를 통해 C-A-B가 정답일 확률이 클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현장에서 응시해본 것이 아니기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적어도 '내가 이 지문을 수능 당일 현장에서 처음 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관점에서 사고 과정을 서술해본 것이기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구나' 하는 맥락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7

Norms는 타인의 행동에 순응하는 사람들의 결과라고 합니다. (대충 해석해볼 때)

그래서 누군가가 '난 이렇게 해야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norm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A는 갑자기 '그러므로'라고 하므로 조금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B도 갑자기 '그러나'라고 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하므로 조금 급합니다.

따라서 C가 첫 번째 문단이 되면 자연스럽게 않을까 하며 문제 풀이를 이어가봅니다. This behavior가 주어진 문장의 one person acts로부터 이어진다 이해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대충 A에서 the behavior와 them이 C의 the initial action과 others로부터 이어진다 생각해볼 수 있고 B의 not need to have the behavior prescribed에서 prescribed가 A로부터 이어진다 생각해보면 C-A-B가 적절하지 않을까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조금씩 더 읽어보시면 큰 문제 없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현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38

수능 영어에 자주 보이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어떤 두 개 이상의 대상이 모여 무엇인가를 함께 하거나 그것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때, 개별 합보다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으며 개별 합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영어 분석 (책참)] 파일 내 38번 지문 하단에 적어둔 세 가지가 그것입니다. Positive sum은 개별 합보다 커지는 경우, 즉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우입니다. Negative sum은 개별 합보다 작아지는 경우, 역효과가 나는 경우이며 zero-sum은 개별 합과 차이가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경쟁에 이를 적용해봅시다. 우리가 win-win이라 하는 상황이 positive sum입니다. Lose-lose는 negative sum이며 보통의 경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인 win-lose가 zero-sum이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cyan색으로 칠한 표현들은 zero-sum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Winner-take-all, extreme, inaccurate, "one"은 zero-sum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replication and verification have social value, multiple, multiple, multiple, many는 win-win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어진 문장은 world class, Higgs particle,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s 등 경쟁, zero-sum으로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선지 2번을 전후로 inaccurate가 이어지므로 선지 3번 직전까지는 우선 zero-sum 이야기를 하다가 슬슬 non-zero-sum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싶습니다.

이후 선지 3번 후에 '하지만'으로 논리가 뒤집어지며 다른 경연들이 non-zero-sum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어진 문장 보시면 어떤 경연들이 zero-sum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문장 더 읽어보시면 3번에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었을 때 문단의 흐름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Higgs particle과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s는 재미있는 과학적 주제 중 하나이니 심심하실 때 배경지식 삼아 찾아보시면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9

앞서 활용하였던 논리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후에 필요 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두겠습니다. 40번과 이외의 문항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p.s. 파일을 작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보다 조심스러워진 부분도 있고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겠다 싶은 부분이,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학습에 활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고 방식을 배워보는 것이 수능 당일 목표하시는 성적을 안정적으로 받아내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